

학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노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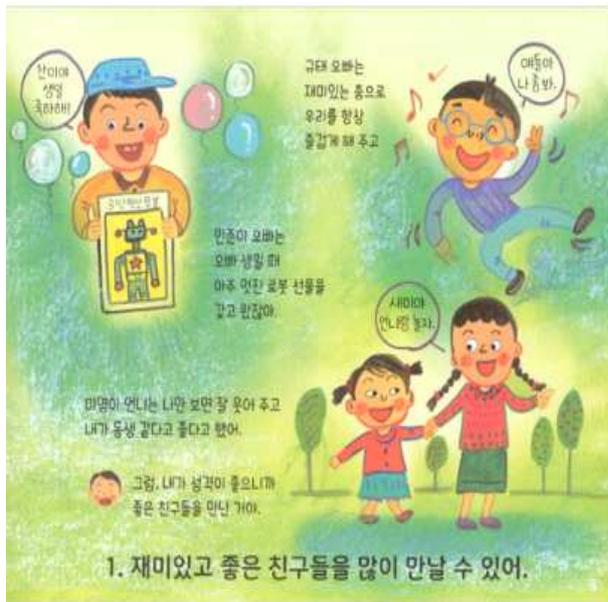
청구기호 아375.2 노68ㅎ

학교가 가고 싶어지는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생활 안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궁금증부터 다양한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규칙을 지키며,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고 듣는 것 등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가치까지 재미있게 짚어 주고 있다.

입학 전인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학교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 저학년 아이에게 **훌륭한 학교생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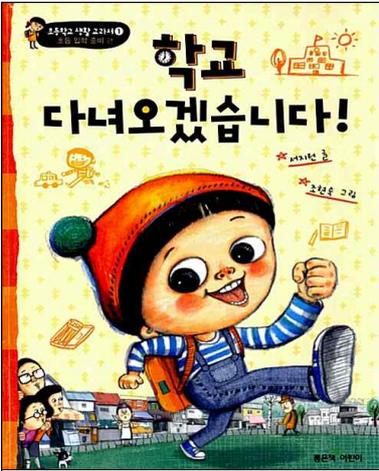
책 속에서 만나는 글



1. 재미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2. 따뜻하고 멋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3.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4. 학교 운동장에서 누구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5.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6.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
7. 점심을 먹고 나면 신나는 자유시간이 있지.
8. 생각을 나누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커질 거야.
9.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어.
10.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
11. 길고 긴 방학이 있지. 야호 신난다!
12. 1년 동안 학교생활이 끝나면 드디어 우리는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될 수 있지.

<본문 글 중>

- 출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서지원

청구기호 아375.2 서79ㅎ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내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혹은 내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는 새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즐겁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유치원은 졸업, 초등학교는 입학!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많은 '의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등교하기는 물론, 선생님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에 가며, 정해진 급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는 매우 버겁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의무는 아이에게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 때문에 학교라는 곳은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혹은 내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는 새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즐겁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 학교를 본다.



2. 배설에 관한 일이다.



3. 구두와 가방을 묶는다.



4.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한다.

책 속으로

“하하, 안녕? 난 ‘똑똑 연필’이라고 해.”

“똑똑 연필이라고?”

새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 이건 비밀인데, 난 모르는게 없거든, 새움이 네가 날 데려왔으니, 뭐든 다 가르쳐 줄게.”

“정말?”

새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본문 29쪽>



친구들, 반기워요! 학교 가고 싶어서 혼자 집어온 친구들, 학교 가기 싫어서 이물 속에서 무는 친구들, 학교에 왜 가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모두 반기워요! 저는 어리본에게 학교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곳인지 알려 주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어리본이 학교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제가 적혀 대답해 줄게요.



학교는 왜 가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면 안 되겠지요? 어리본은 이답에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연회 영화를 만들고 싶나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책꽂이사가 되고 싶다고요?

정말 멋진 꿈들이네요. 학교에 가는 건 바로 어리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학교에 가면 어리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답니다. 차근차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요.



학교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것도 멋진 질문이네요. 역시 어리본은 정말 똑똑하군요. 학교는 아주 근사해요.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박사님의 연구실 같기도 하고, 도서관 같기도 해요.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실,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컴퓨터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과 운동 기구들, 어리본이 아프면 치료해 주는 약오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실도 있어요! 이렇게 재미난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이 무척이 많을까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벌써부터 걱정되나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꼭! 선생님님은 어리본의 엄마나 아빠 같은 분이네요. 어리본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놀람도 가르쳐 주답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부르세요! 선생님이 걱정 되는지 해줄 해 줄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리본의 엄마나 아빠니까요.



학교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 받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으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지각을 하면 안 돼요. 지각은 아주 나쁜 습관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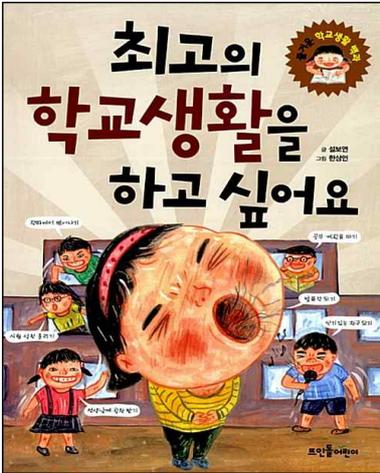
비교게 인사하세요. 손을 세뼉에 대고 웃는 표정으로 어리본을 맞이해 “안녕하세요!”라고요.

공부 시간에는 공부만 하세요. 공부 시간에 떠들고, 춤추고, 놀아다니면 안 돼요.

화장실은 위는 시간에 다녀오세요. 참았다가 공부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학교 화장실이 싫다고 참아 가면 안 돼요.

와, 이제 학교에 갈 준비가 다 됐나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칭찬 받을 일만 남았어요. 어리본, 고등학생이 된 걸 축하합니다!





최고의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요

설보연

청구기호 아375.2 설45주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따 당한 경험이 있는 소심한 6학년 소녀 '영주'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풀어내는 1년간의 일기를 엿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학교생활 비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뿐 아니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나가도록 구성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법, 발표를 잘하는 법 등을 익혀나갈 수 있다.



목소리가 큰 데다가, 개그맨처럼 재미있게 말도 잘하는 지연이와 친구가 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숨겨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까지를 따라간다.

호감을 주는 친구가 되는 법,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이겨내는 법 등을 통해 학교생활 중에 겪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술술 풀어나가도록 이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학교생활이 충분히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다.

책 속으로

여름

우리 네 명이 공부 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성적도 올리고 우정도 더 깊어질 우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멋진 여름이다.

겨울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이상해진다. 졸업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많은 추억을 쌓도록 노력해야겠다.

<본문 글 중>



3월 8일 | 이상한 아이 발견 ** <수> 8

책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희망을 갖고 지내라는 말 같은데, 나는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이 별로다. 해가 뜨면 나는 또 학교를 가야 하고 학교에서 혼자 몇 시간을 돌하르방처럼 멍청히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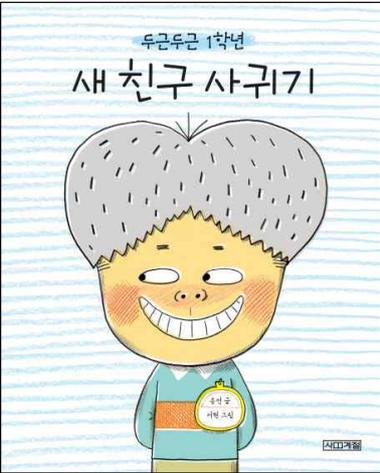
옆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말이 웃기면 일부러 탄생각을 한다. 엇듣고 있다가 혼자 웃는 것처럼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웃음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6학년이 되고, 요 며칠 동안 나는 웃음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됐다. 우리 모둠에 있는 어떤 아이 때문이다.

이름이 설지연인가, 설지현인가 그렇다. 그 아이는 목소리가 엄청 크다. 그래서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린다. 게다가 늘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 있다. 여자, 남자, 우리 반, 다른 반, 같은 학년, 다른 학년을 불문하고 교실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아무튼 전 교생과 친구하기로 약속한 아이 같다.

나는 다른 일에 집중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싶지만 같은 모둠이기 때문에 그 아이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다. 늘 아이들이 구름처럼 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끊이 없고, 하는 말들이 웃겨서 나



- 출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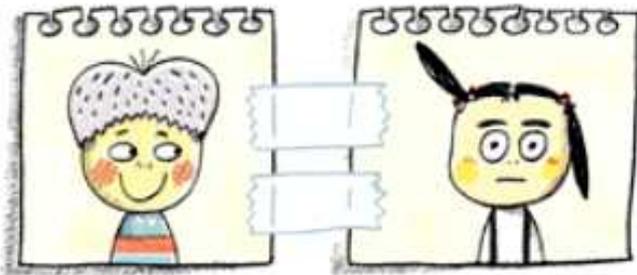


두근두근 1학년 새 친구 사귀기

송언

청구기호 아813.8송63사

두근두근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20여 년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실제 아이들의 생활을 이야기에 담아온 작가 송언과 구김살 없고 해맑은 그림으로 아이들 마음을 표현해온 화가 서현이 1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를 꾸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곱 살답게, 일곱 살이 가진 힘으로 학교에 적응해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알맞게 담겨 있다.

두근두근 설렘과 두려움 사이, 첫 출발에 응원을 보내는 학교 그림책



1학년을 앞둔 일곱 살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곱 살 윤하와 도훈이가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입학 앞둔 아이들이 두근두근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일곱 살 특유의 천진함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그 힘으로 학교생활 즐겁게 땅! 하고 시작해 보라고 파이팅을 보낸다.

책 속으로

엄마가 손뼉을 "짜!" 쳤어요.
 "이러면 되잖아! 비눗방울 공자를 좋아하고,
 공자에게 영장 잘해 주고, 또 공짜로 신나게 놀아 줘.
 그 대신 '이러라' 속지는 마, 그만 다 썰렁을 거야."
 "아, 맞다! '이러라' 속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야 도루는 어른이 놓였답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

단짝 친구만 있는 친구들에게



보통 내성적인 친구들이 단짝을 만들어요. 한 번 친구가 되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요.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짝과 싸우기라도 하면 몹시 속상해 해요. 성격을 금방 바꾸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단짝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섭섭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얘기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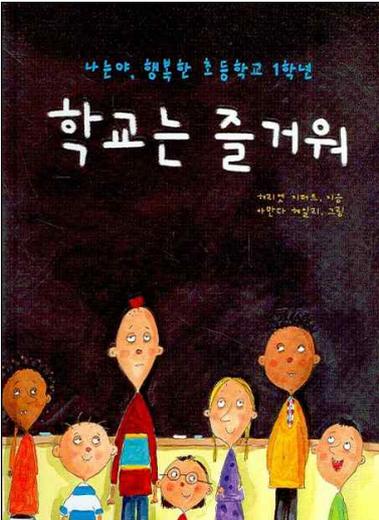
“너랑 친구 안 해!”를 자주 말하는 친구들에게



조금만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하고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날 사과하죠?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친구에게 말해 보면 어떨까요? ‘절교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본문 글 중>

- 출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학교는 즐거워

해리엇 지퍼트

청구기호 아843지843ㅎ



그림책을 통하여 만나는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일들을 재미 있는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책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인생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변화 중에 가장 처음 맞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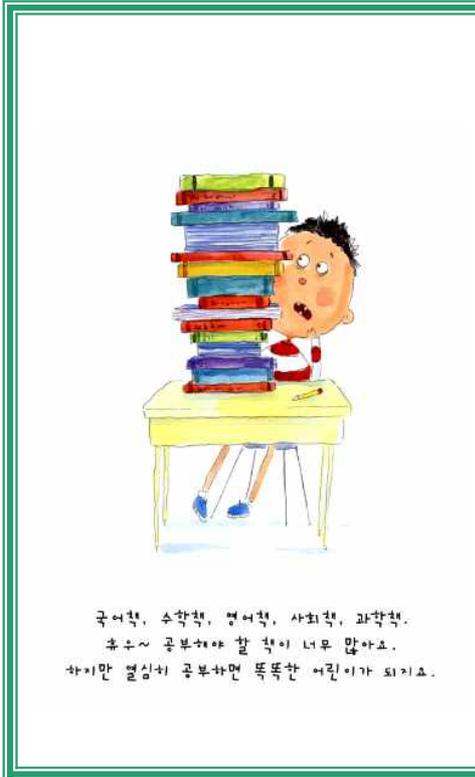
그래서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책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을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아이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나를 도와줄 선생님들을 만나는 곳이며, 이제는 어린 꼬마가 아니라 어엿한 학생으로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A(아), E(에), I(이), O(오), U(우)
학교에서는 영어도 배워요.

책속에서



선생님은 칠판에 글씨를 쓰세요.
칠판은 선생님의 공책이에요.
우리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도 해요.

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연필과
지우개가 꼭 필요하지요.
준비물은 빠뜨리지 않고
미리미리 잘 챙겨 와요.

질문이 있거나 선생님의 물음에 답할 때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어요.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칭찬을 해 주시지요.



<본문 글 중>

- 출처 교보문고 (<https://www.kyobobook.co.kr>)